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5. 3. 30 ~ 4. 5

전남농업정보

27
VOL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수급 동향

쌀·콩 수급 동향과 전망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곡물, 축산 가격동향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곡성 '맘애탄은 딸기' 러시아 첫 수출

저비용·고효율 농업기술정보

밥맛 좋은 햅쌀 생산은 5월초에 이양해야

정책동향

농식품부, '15년 농촌재능나눔 민간단체
공모 추진

해외 농업정보

2015년 미국의 대두과중은 사상최대인
반면 옥수수는 감소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음.

☼ 농산물 수급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쌀 소비 감소가 생산 감소보다 빨라서 정부의 수급균형을 위한 정책이 없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산지 쌀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곡 물 : 쌀, 콩

- 쌀 : 신곡수요량 400만 톤을 초과하는 물량이 모두 시장에서 격리될 경우 2015양곡연도 신곡 시장 공급가능 물량은 전년 대비 4.4% 줄어들어 단경기 계절진폭은 1.6% 내외 전망
- 콩 : 3~5월 국산 콩 재고가 일부 소진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2년간 비축물량이 남아있어 국산 콩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축 산 : 돼지, 육계

- 돼 지 : 생산량은 감소하나 소비심리 위축, AI 대체효과 축소로 4월 지육가격은 전년 대비 약보합세인 4,500~4,700원/kg 전망
- 육 계 : 닭고기 공급 증가로 4월 육계 산지가격 1,600~1,800원/kg 전망

❁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전남매일, 한국농어민신문)

- ▶ 곡성 '맘앓담은 딸기' 러시아 첫 수출
- ▶ 대과토마토서 잔류농약 검출...대일 수출 타격
- ▶ 밤·표고버섯 올해 수출 전망 '떡구름'
- ▶ 한국 농식품 유럽 나들이...영국식음료박람회서 홍보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 ▶ 밥맛 좋은 햅쌀 생산은 5월초에 이양해야
- ▶ 순천시,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실시
- ▶ 장흥군,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추진
-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 활성화 매진
- ▶ 전남농기원, 단호박 접목묘로 곡성재래종 선발
- ▶ 축산연구소, 가축 사육환경 개선 해결책 내 놓아

❁ 정책동향(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 '15년 농촌재능나눔 민간단체 공모 추진
- ▶ 주민의 손으로 더 깨끗한 농촌 마을을 만든다
-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친환경·고품질로 앞당긴다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2015년 미국의 대두과종은 사상최대인 반면 옥수수는 감소

▶ 중국, 미국산 밀 판매

▶ 해외 곡물시장 현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미 달러화 약세 및 환매수세 유입으로 경보합 마감
- 옥수수 선물가격은 미 달러화 약세 및 투자자들의 환매수세로 상승
- 대두 선물가격도 다른 곡물가 마찬가지로 미 달러화 약세 및 환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 고소득 농업사례(전남농업기술원, 전남매일)

▶ 밭에서 나는 응답 '울금'...밭효로 성분 UP!

▶ 해남서 빨간배추 본격 재배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14년산 콩 보급종 추가신청 접수

- 신청기간 : 3. 23. ~ 4. 10.
- 신청방법 :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대상품종 : 대원, 태광, 풍산나물 등 7개 품종 700톤
 - 장류 및 두부용 : 6개 품종(대원, 태광, 우람, 대풍, 천상, 연풍), 610톤
 - 콩나물용 : 1개 품종(풍산나물), 90톤
- 공급가격 : 17,400원/5kg

▶ '14년산 벼 보급종 개별신청 접수

- 신청방법 : 국립종자원홈페이지(www.seed.go.kr) 및 전화신청

- 대상품종 : 황금누리, 추청, 삼덕, 남평, 일미 등 13품종 1,200여 톤
- 종자공급 : 종자대금 입금 후 택배를 통해 농가에 공급 또는, 직접 방문 수령

▶ '1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가 신청

- 신청기간 : 3. 26. ~ 4. 15.
- 신청장소 : 시·군(축산부서)
- 지원대상 : 2014.12.31일 이전 축산업등록·허가된 가축 사육농가
- 사업비 : 206억원(보조금 6, 용자금 200)
- 지원기준
 - 보조지원(준업농~전업농 규모) : 보조 30%, 용자 50%, 자담 20%
 - 이차보전(기업농규모) : 용자 80%, 자담 20%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 등 신축 및 개보수

▶ 닭·오리 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신청

- 기간/장소 : '15. 3. ~ 12./시·군(축산부서)
- 지원대상 : 260개소(닭·오리 사육농가)
- 지원내역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비용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3. 30.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3/30)	전주 (3/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40,800	40,800	41,250	43,600	41,300	↓ 6.4	↓ 1.2
	콩(백태)	35kg	136,000	136,000	138,500	142,000	185,007	↓ 4.2	↓ 26.5
	고구마(밤)	10kg	28,000	28,200	26,550	19,000	24,800	↑ 47.4	↑ 12.9
	감자(수미)	20kg	33,200	35,000	33,350	17,600	25,403	↑ 88.6	↑ 30.7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500	510	445	360	1,148	↑ 38.9	↓ 56.4
	양배추	10kg	6,100	6,200	6,600	3,830	5,890	↑ 59.3	↑ 3.6
	오이(다다기계통)	15kg	35,333	39,333	56,250	43,417	45,806	↓ 18.6	↓ 22.9
	애호박	8kg	18,600	22,200	24,800	21,500	21,863	↓ 13.5	↓ 14.9
	토마토	10kg	30,000	31,000	30,150	32,900	35,211	↓ 8.8	↓ 14.8
	무(월동)	1kg	500	490	498	424	-	↑ 17.9	-
	당근	20kg	21,000	21,000	20,750	21,600	26,520	↓ 2.8	↓ 20.8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50,000	804,000	↑ 26.2	↑ 2.0
	풋고추	10kg	52,000	76,800	98,650	45,650	53,033	↑ 13.9	↓ 1.9
	마늘(난지)	10kg	34,600	35,200	34,800	27,400	36,367	↑ 26.3	↓ 4.9
	양파	1kg	640	640	665	648	931	↓ 1.2	↓ 31.3
	대파	1kg	1,470	1,510	1,805	1,050	1,613	↑ 40.0	↓ 8.9
	파프리카	5kg	27,800	28,000	26,300	28,650	32,337	↓ 3.0	↓ 14.0
	방울토마토	5kg	23,200	20,000	15,250	27,400	25,657	↓ 15.3	↓ 9.6
	딸기	1kg	8,600	9,200	10,150	8,450	8,393	↑ 1.8	↑ 2.5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63,800	62,400	62,600	83,800	76,622	↓ 23.9	↓ 16.7
	배(신고)	15kg	40,400	39,800	37,050	44,400	45,417	↓ 9.0	↓ 11.0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3/30)	전주 (3/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8,000	528,000	528,000	534,000	569,667	↓ 1.1	↓ 7.3
	들깨	45kg	426,000	426,000	430,000	450,000	378,311	↓ 5.3	↑ 12.6
	새송이버섯	2kg	8,600	8,800	9,050	8,300	-	↑ 3.6	-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540	6,453	6,320	6,131	6,002	↑ 6.7	↑ 9.0
	돼지고기(삼겹살)	100g	1,741	1,863	1,702	1,902	1,608	↓ 8.5	↑ 8.3
	닭고기	1kg	5,340	5,542	5,456	5,683	5,827	↓ 6.0	↓ 8.4
	계란(특란)	10개	1,951	1,977	1,970	2,039	1,848	↓ 4.3	↑ 5.6
	우유	1리터	2,548	2,548	2,548	2,547	2,260	-	↑ 12.7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3. 30.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801 천원	4,856 천원	4,202 천원	↓ 1.1	↑ 14.3
	거세	5,279 "	5,296 "	5,146 "	↓ 0.3	↑ 2.6
송아지 (6~7월)	암	2,126 "	2,039 "	1,420 "	↑ 4.3	↑ 49.7
	수	2,550 "	2,382 "	2,238 "	↑ 7.1	↑ 13.9
육우(600kg)		3,338 "	3,637 "	2,676 "	↓ 8.2	↑ 24.7
젖소수송아지(7일령)		50 "	50 "	16 "	-	↑ 2125
돼지(110kg)		371 "	387 "	361 "	↓ 4.1	↑ 2.8
육계(원/kg)		1,793 원	1,852 원	1,781 원	↓ 3.2	↑ 0.7
계란(원/특란10개)		1,351 원	1,283 원	1,437 원	↑ 5.3	↓ 6.0
오리(원/kg)		2,500 원	2,500 원	2,833 원	-	↓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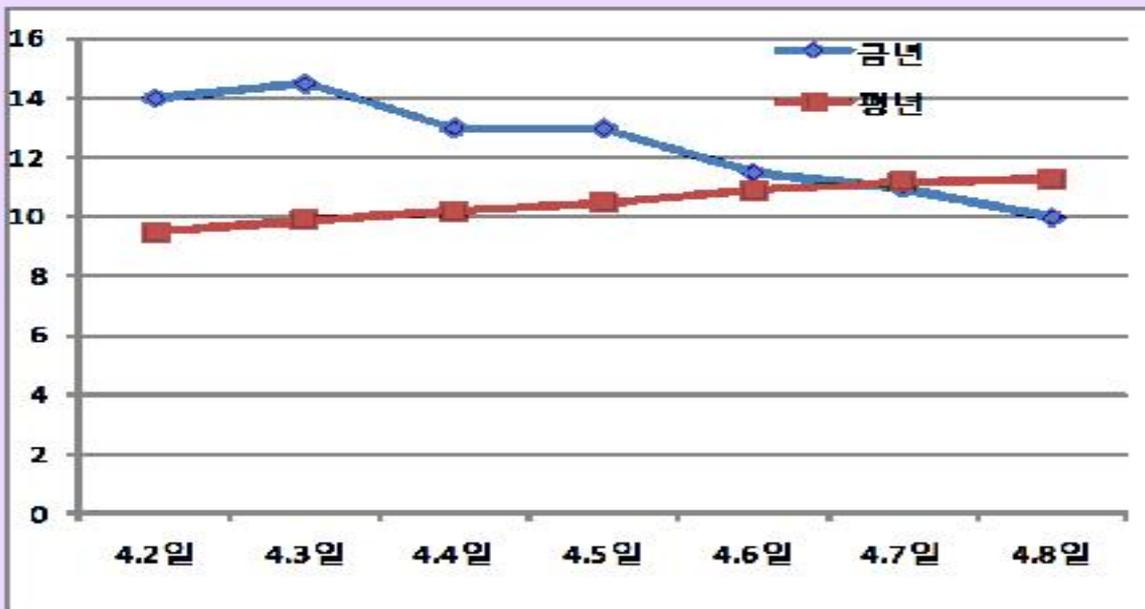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12.4	10.5	1.9	15.7	16.1	-0.3	9.1	6.3	-1.7	2.1
4. 02(목)	14	9.5	4.5	18	14.9	3.1	10	5.4	-4.6	2.2
4. 03(금)	14.5	9.9	4.6	16	15.4	0.6	13	5.6	-7.4	2.3
4. 04(토)	13	10.2	2.8	16	15.7	0.3	10	5.9	-4.1	2
4. 05(일)	13	10.5	2.5	16	16.1	-0.1	10	6.2	3.8	1.8
4. 06(월)	11.5	10.9	0.6	15	16.6	-1.6	8	6.5	1.5	1.6
4. 07(화)	11	11.2	-0.2	15	16.9	-1.9	7	7	0	2.2
4. 08(수)	10	11.3	-1.3	14	16.8	-2.8	6	7.2	-1.2	2.3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C)>

2. 농산물 수급 동향

쌀·콩 수급 동향과 전망[농업전망 2015]

□ 수급 동향

- 2014년 벼 재배면적이 81만 6천 ha로 전년대비 2.1% 감소하였으나 단수는 기상여건이 좋아 2.4% 증가(역대 2번째로 높은 520kg/10a)하여 전년과 비슷한 424만 1천 톤의 쌀이 생산되었다. 2년 연속 풍작으로 2014년 수확기(10~12월) 쌀 가격은 80kg당 16만 7,347원으로 전년대비 4.5% 하락하였다. 2014양곡연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5.1kg으로 감소하였지만, 가공밥 시장은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POS 자료 분석결과, 2014년의 가공밥 판매액과 판매량이 각각 전년대비 8.7%, 9.0%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 2014년 콩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6.7% 감소하였고 남부지역의 기상악화로 단수가 감소하여 콩 생산량은 전년대비 9.6% 감소하였다.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3년산이 대풍으로 재고가 남아 2015양곡연도 수확기 콩 평균도매 가격은 kg당 3,985원으로 전년 수확기대비 15.3% 하락하였다.

□ 수급 전망

- 2015양곡연도 생산량 및 전년 이월물량이 늘어나 공급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수확기 시장안정을 위해 2014년산 쌀 생산량(424만 톤) 중 신곡수요량(400만 톤)을 초과하는 물량을 시장격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시장에서의 신곡 공급가능물량은 전년대비 4.4% 줄어들 전망이다. 단경기(7~9월) 평균 산지 쌀 값은 전년대비 1.6% 내외로 상승한 17만원/80kg 수준으로 예상

된다. 중장기적으로 쌀 소비 감소가 생산 감소보다 빨라서 정부의 수급균형을 위한 정책이 없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산지 쌀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15년 콩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여 전년 대비 6.0% 감소한 7만 201ha로 조사되었다. 콩은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생산 대체에 있어서 중요한 품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콩 재배면적은 수입 증가 및 국산콩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완만하게 감소하여 2025양곡연도 5만 9,200ha에 이를 전망이다. 콩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공업체들의 수입콩 선호, 렌틸콩과 같은 대체품목 수입 등으로 국산콩 수요가 부진하여 가격 상승은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 수입 동향 및 전망

- 2015년 쌀 관세화 이행에도 기존의 의무수입물량 40만 9천 톤은 5% 관세로 계속 수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외산의 가격 차이에 의해 의무수입물량외의 외국산 쌀이 수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2014양곡연도 식용콩 수입량은 국산콩 재고가 남아있고 경기침체 및 소비 위축으로 수입콩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3.8% 감소한 30만 7,010톤이었다. 향후 FTA 체결 등으로 무관세 수입 쿼터가 증가하여 식용콩 수입량은 2025양곡연도에는 49만 2,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쌀값 내리막...20kg당 4만원대 무너지나

- 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농촌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약속했던 쌀 6만톤 추가 시장격리 조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쌀 시장의 침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산지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가 신곡 수요량 400만톤을 넘어선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방침을 세우고, 1차로 18만톤을 시장격리를 단행했지만 쌀값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산 산지 평균 쌀값은 20kg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5일 4만4461원, 10월 15일 4만2417원, 10월 25일 4만2022원 등으로 형성됐지만 올해 3월 15일에는 4만191원으로 대폭 떨어졌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4만원대도 허물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 쌀값 하락으로 농협RPC는 초비상이다. 지난해 전국의 농협RPC를 통합한 결산에서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대로 가면 올해의 적자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농협중앙회 양곡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현재 쌀 값은 무려 6% 가량 급락했다”며 “역계절진폭으로 RPC 적자가 심각했던 2009~2010년 상황이 되풀이될 경우 그 당시보다 더 큰 적자가 나면서 올해 수확기 벼 매입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 이 때문에 산지 쌀값 역계절진폭이 커지면서 추가격리 6만톤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도 손쓸 방법 없이 관망하고 있는 실정.

-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추가 시장격리 예산을 운영하고 있지만 하락세가 완만하다보니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하락폭이 커질 때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매일 쌀값 동향을 파악하고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15. 3. 27.)

3.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곡 물 : 쌀, 콩

○ (쌀)

- 신곡수요량 400만 톤을 초과하는 물량이 모두 시장에서 격리될 경우 2015양곡연도 신곡 시장 공급가능물량은 전년대비 4.4% 줄어들어 단경기 계절진폭은 1.6% 내외 전망
- 단, 현재까지 추가 격리가 시행되지 않아 단경기 가격 상승폭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으며, 추가 격리가 없을 경우 산지유통업체의 재고 부담이 가중되고 투매현상이 발생하여 가격하락 예상

○ (콩)

- 3~5월 국산 콩 재고가 일부 소진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2년간 비축물량이 남아있어 국산 콩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축 산 : 돼지, 육계

○ (돼 지)

- 생산량은 감소하나 소비심리 위축, AI 대체효과 축소로 4월 지육가격은 전년 대비 약보합세인 4,500~4,700원/kg 전망

○ (육 계)

- 닭고기 공급 증가로 4월 육계 산지가격 1,600~1,800원/kg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곡성 ‘맘애탄은 딸기’ 러시아 첫 수출

- 동남아 시장 탈피 수출 다변화 전략 성공 평가 -

- 곡성군(군수 유근기)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멜론과 딸기를 수출하고 있는 곡성멜론주식회사(대표 이선재)가 전략적인 시장개척을 통해 지난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곡성 ‘맘애탄은 딸기’ 288박스(432kg)를 첫 수출했다고 29일 밝혔다.
- 군은 그 동안은 동남아 지역에만 딸기를 수출했으나 이번 러시아 수출을 통해 해외 시장 다변화를 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 이번에 러시아로 첫 수출되는 딸기는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해 맛이 일품이며, 다른 품종보다도 새콤달콤한 것이 특징이다.
- 특히 소속 농가에 대한 철저한 수확시기 조절, 이산화염소 훈증에 의한 부패율 경감 기술을 활용해 해외 수출 시 물러짐 및 부패에 대한 단점을 보완했다.
- 최근 ‘기차타고 멜론마을’에 이어 ‘맘애탄은 딸기’ 브랜드로 전라남도지사 품질 인증을 획득해 품질에 대한 차별화를 견고히 하고 있다. 또 전남농업기술원의 생산비 절감 경영 모델 농장에 최종 선정돼 고품질 수출 딸기 생산 기반을 조성했다.
- 특히 농산물 전처리 가공공장 냉동가공 설비를 완료해 가공된 냉동딸기를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 및 국내 판로를 개척 중이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 곡성멜론(주) 이선재 대표는 “앞으로도 고품질 수출 딸기 환경 조성으로 ‘기차타고 멜론마을’에 이어 ‘맘애탄은 딸기’도 세계로

도약하는 브랜드로 만들어 생산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매일

■ 대과토마토서 잔류농약 검출...대일 수출 타격

- 일본, 한국산 전량 최소 1년이상 전수검사 조치 -

- 일본시장에서 식자재용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던 우리 대과토마토가 최근 잔류농약 검출에 따른 전수검사 영향으로 향후 대일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수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홍원물산의 대일 수출용 대과토마토에서 허용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됐고, 이어 지난달 중순 농협무역(NH무역)이 일본으로 수출한 대과토마토 샘플 조사에서 현지 기준에 맞지 않는 농약이 검출됐다.
- 이에 일본 정부는 현지에 수입되는 국산 대과토마토 전량에 대한 전수검사를 즉각 실시한다고 밝히며 검역 강화에 나섰다. 이는 지난 2008년 3월 일본에 수출된 국산 방울토마토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전량 회수조치를 당한 이후, 7년 만이다.
- aT 도쿄지사의 권현주 부장은 “보통 일본 정부의 전수검사는 1~2년 내외로, 해당 품목의 안전성 상황에 따라 전수검사 기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최소 1년 이상은 전수검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대과토마토의 대일 수출이 위축되는 건 분명하다”고 전했다.
- 일본의 전수검사 실시로 수출업계는 큰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다. 수출업체 관계자는 “전수검사 이전에는 당일통관으로 수출용 대과토마토 선도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지금은 통관기간이 사흘로

늘어나면서 수입바이어들이 납품일이나 선도에 종종 불만을 제기하는 일이 생기고 업체의 시간 및 비용 부담도 커지면서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 aT에 따르면 일본은 대과토마토를 포함한 우리 토마토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다. 지난해의 경우, 대일 수출량은 3209톤으로 전체 수출량(3290톤)의 97.5%를 차지했다. 방울토마토와 대과토마토를 분리해 수출통계를 잡고 있지 않지만, 대일 수출의 경우 80% 이상을 대과토마토가 차지하고 있다.
- 더욱이 지난해 상반기 일본의 식자재용 토마토 수입시장 점유율에서 우리가 40% 이상을 차지해 1위에 오르는 등 현지 반응은 좋은 편. 하지만 이번 일본 정부의 전수검사로 올해 대과토마토의 대일 수출 부진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수출업계는 대과토마토의 체계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해 파프리카·방울토마토처럼 농산물 ID 등록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출업계 관계자는 “ID 등록제는 문제 발생시 해당 수출업체와 생산농가를 추적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품목의 경우 ID 등록제로 가격 등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나, 대과토마토의 경우 어느 정도 고정 시세가 형성됐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대과토마토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ID 등록제 도입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조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전문관은 “ID 등록제 도입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

로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수출시장에서 안전성에 대한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와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안전성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밤·표고버섯 올해 수출 전망 ‘먹구름’

- 국내 단기 임산물의 대표 수출 품목인 밤과 표고버섯이 수출국 현지의 소비둔화, 국내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올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우리 임산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밤의 지난해 수출량은 1만 554.8톤으로 2013년에 비해 17.6% 감소했다. 수출액의 경우 감소세가 더 두드러져 2013년 3276만9719달러 보다 29.2%나 하락한 2319만4970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밤 생산량이 줄어든데다, 우리 밤의 주요 소비처인 일본의 소비부진이 겹쳤기 때문. 우리 밤의 수출 비중은 중국이 가장 높지만 중국에서 탈피 등 1차 가공과정을 거쳐 실제 소비국인 일본으로 재수출되는 만큼 일본의 밤 소비가 우리 밤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러한 분위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2014년산 저장 밤의 수출시기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일본 밤 소비 부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를 반영하듯 지난 2월까지 수출량은 140톤(생밤 환산) 수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 가량 줄었다.
- 따라서 올해 밤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도 우리 밤의 주 소비처인 일본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올해도 밤 수출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게 수출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조하나 산림청 임

업통상팀 주무관은 “일본의 소비부진도 문제지만 지난해부터 중국 업체들이 재고량을 많이 확보하지 않고 실소비량만 수입해 가는 것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올해는 일본 내 판촉 및 신규시장 개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표고버섯은 지난해 대만 수출량 감소로 인해 2013년 보다 58.6% 줄어든 60.6톤을 수출하는데 그쳤다. 대만의 표고버섯 수입 쿼터량 배정이 늦어져 수출이 지연됐고 대만과 홍콩 등지에서 우리 표고버섯과 경쟁하는 일본·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이 낮았던 것도 수출에 마이너스로 작용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원래 고가격 프리미엄 제품군을 형성하던 일본산 표고버섯이 엔저 및 자국 내 소비 부진으로 수출가격이 떨어진 것이 우리 버섯에 큰 타격을 입혔다.
- 올해도 수출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배면적 축소 및 이상기후로 인해 표고버섯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수출 가격이 높게 형성돼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표고버섯 수출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 이와 관련 조하나 주무관은 “대만 쿼터 문제가 있었던 지난해보다는 수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는 5월 표고버섯 수출 간담회를 개최, 이를 통해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한국 농식품 유럽 나들이...영국식음료박람회서 홍보

- 우리 농식품이 '영국식음료박람회(IFE UK 2015)'에 참가, 시식회 등을 통해 국산 농식품의 건강함을 적극 알렸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영국 등 유럽지역 수출확대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영국 종합전시장(ExCel London)에서 개최된 영국식음료박람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영국식음료박람회는 55개국의 1200개의 식품업체가 참가하는 국제식품전시회로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최적의 박람회로 알려져 있다.
- aT는 이번 박람회에 188㎡규모의 한국관을 설치하고 16개의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와 건강식품, 인삼, 스낵, 차류, 음료 등을 홍보했다. 이와 함께 영국에서 한식강의를 하고 있는 임형수 셰프와 ‘쌈밥정식 한상’이라는 부대행사를 진행해 현지 언론사 및 방문객에게 한식을 널리 알렸다.
- 유충식 aT 식품수출이사는 “지난 2012년 이후 대영국 수출실적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현지에서 우리 농식품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5.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밥맛 좋은 햅쌀 생산은 5월초에 이앙해야

- 전남농업기술원, 벼 조기재배를 위한 핵심기술 발표 -

- 이앙시기, 육묘기간, 육묘방법, 시비량이 중요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밥맛 좋은 햅쌀 생산을 위한 벼 조기재배는 고품질 조생 품종을 선택하여 5월 상순경에 이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전남도가 단경기에 전남 햅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전남쌀의 시장 선점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 금년도 추석은 예년보다 늦은 9월 27일이나 지난해 생산한 쌀의 밥맛이 떨어지는 8월경에 햅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월 25일까지 벼를 수확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7월 중순에 이삭이 패야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생품종을 선택해야 하고 적어도 5월 상순까지는 이앙을 해야 한다.
- 전남 지방에 알맞은 조생 품종으로는 수밭아에 강하고 품질이 우수한 전남1호가 가장 좋으나 종자공급량이 많지 않으므로 재배안정성이 높은 품종인 조평과 운광을 선택해도 좋다.
- 5월 상순에 일찍 모를 심으려면 최소한 4월 상순까지는 볍씨를 파종해서 모를 길러야 한다.
- 전남 지방의 4월 상순 평균기온은 대체로 12℃ 이하의 저온이므로 노지에서 벼를 육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조기재배의 육묘방법은 어린모로 육묘하는 것보다 30일 정도 기르는 중묘가 이앙 후에 저온에 잘 견디며 이삭이 패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또한, 상자당 130g를 뿌려야 모가 튼튼히 자라므로 파종량을 잘 지켜야 한다.
- 시비방법은 질소질거름을 보통 10a당 9kg 정도 주는 것에 비해 7kg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완전미 비율도 높아지고 싸라기 발생을 줄일 수 있다.
- 또한, 조기재배에서는 생육기간이 짧으므로 새끼칠거름을 줄 필요가 없고, 벼가 질소거름을 생육초기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70% 정도 주는 시비방법이 유리하다.
- 조기재배에서는 30℃ 이상의 높은 온도조건에서 이삭이 패어 일반재배보다 벼가 빨리 익으므로 이삭이 팬지 45일 경에 수확하는 것이 분상질립과 싸라기가 적어 쌀품위와 밥맛을 좋게 한다.
- 식량작물연구소 이인 박사는 올해도 단경기에 고품질 햅쌀을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안전한 벼 조기재배 매뉴얼을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순천시,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실시

- 순천시는 오는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용굴삭기 현지포장 실습을 시작으로 8개월 동안 9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귀농인 등 1,356명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한다.
- 최근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노동력이 부족한 여건과 귀농인의 증가, 도시농업 참여 확대 등으로 농작업의 생력화를 위해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많은 농업인들이 농기계 사용 및 관리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 농기계 오작동에 의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 시는 이러한 농업기계 현장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 농기계의 작동원리와 운전조작 및 간이 정비기술에 대한 교육 실시로 농기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작업의 기계화 촉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이번 교육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농업기계 전문기술 교육과정과 병행해 고령화에 따른 여성 농업인의 능력을 향상시켜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여 줄 기회를 제공한다.
- 시 관계자는 “농업기계 안전교육은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적기 영농실현에 초점을 두고 기종별 사용요령과 고장 원인분석 및 수리기술도 교육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앞으로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촌지원과(749-8700)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장흥군,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추진

- 전남 장흥군이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23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각 읍·면 회의실에서 ‘친환경농업인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 친환경농업인 54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업정책

설명과 이에 따른 유기농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 이번 교육에는 전문 강사와 선도농업인이 강사로 나서 저비용 친환경농업 실천 방안과 선진농업기술에 대한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특히 교육기간 중 수시로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임원과 각 작목반 대표, 관계 공무원 120여명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군 친환경농업 육성 방안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지난 16일 장흥읍에서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은 오는 27일 회진면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 군은 이번 교육기간 동안의 건의내용과 간담회 결과를 향후 친환경농업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친환경농업이 비용과 인력이 많이 요구되는 번거로운 농법이라는 편견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친환경농업이 더욱 확산돼 농가의 자율적인 관리방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 활성화 매진

- 차나무 신품종 농가시범단지 육성 및 홍차 제조기술 이전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재래종 차나무에 비해 수량이 2배정도 많고 추위에 강하면서 기계수확으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한 신품종 묘목 대량생산에 성공하여, 농가에 조기 공급하고자 시범단지 조성 및 홍차 제조기술 이전을 위한 대한다업(주)와 3ha 규모의 차밭을 조성하기로 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전남지역 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차 재배농가들에 대한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차산업연구소는 2001년부터 육성한 참녹, 보향, 명녹 등 신품종 묘목을 대량증식하여 농가에 공급하여 신품종 차밭조성을 지원하였다.
- 또한 차 가공기술 개발로 녹차와 홍차 제다법 체계를 확립하여 제다업체에 기술이전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 이번 MOU체결은 그동안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던 신품종 묘목 공급사업과 홍차 제다기술 이전을 대규모 업체와 추진함으로써 차산업 전반에 시너지효과를 내서 침체된 전남지역 차산업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차산업연구소 윤창용연구사는 이번 대한다업(주)과 업무제휴 협약은 단일품종 차밭 조성(3ha/3년)을 위한 차나무 신품종“참녹”25,000주(1ha용)을 2015년 4월에 공급하고, 적극적인 재배관리 컨설팅으로 유기차밭 조성과 홍차 제다기술 이전에 적극 협력하여 다양한 제품개발과 국외 수출을 통해 차 산업 활성화에 공동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기원, 단호박 접목묘로 곡성재래종 선발

- 재래호박을 단호박 대목으로 이용하면 수량 16~26% 증가 -
- 토종 재래호박의 새로운 가치 발견에 더 큰 의미 부여..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단호박 재배에서 접목묘를 이용할 경우 재배 작형별로 16~28%까지 수량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 또한 단호박 대목으로는 토종종자인 재래호박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했다.

- 단호박은 국내외 수요증가, 재배 용이성,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재배와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전남도내 재배면적은 384ha로 전국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7~8월에 집중적으로 생산, 홍수출하로 이어져 가격이 하락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이런 단호박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가온하우스를 이용한 억제재배와 노지 터널 조속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 하지만 고온기 육묘에 의한 암꽃 수 감소와 일조량 감소, 온도 저하 등의 계절적 영향, 장마 또는 가뭄, 고온으로 인한 생육 불량 및 연작 장애로 수량이 감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 이에 농업기술원은 단호박 생산성 증가를 위해 접목묘 이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토종종자인 재래호박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박과류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목용 품종과 재래호박 6종을 포함한 총 8종을 대상으로 시험을 한 결과 단호박과 접목 친화성이 좋고, 품질을 유지하면서 수량을 높일 수 있는 대목용으로 재래 토종호박인 곡성재래종을 선발하였다.
- 곡성재래종을 대목으로 이용하여 단호박을 접목해 재배작형별로 재배한 결과 단호박의 과육두께와 과중의 증가, 안정착과율 증가에 따른 착과량 증가로 노지 조속재배 17%, 반촉성재배 16%, 억제재배에서 26%의 수량이 증수되었다
- 또한 곡성재래종을 이용한 접목묘의 경우 무접목묘에 비해 생육이 왕성하여 재배기간 동안 흰가루병, 세균병 발생이 30% 이상 줄었다.

- 단호박 대목용으로 선발된 재래호박은 토종작물 수집 유전자원 특성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계통으로 추가적인 고정화 작업을 거쳐 품종보호출원을 계획하고 있다.
- 원예연구소 장미향 연구사는 “전남 단호박 재배농가는 현재 대부분 무접목묘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상기후가 많은 요즘, 환경의 영향이 큰 노지 조숙재배나 억제재배 작형에서는 접목묘를 이용하는 것이 초세 확보 및 병해충 발생 감소로 수량증대와 품질향상에 효과적이다며 선발된 재래호박 품종에 대해서는 접목묘 이용 단호박 재배기술과 함께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축산연구소, 가축 사육환경 개선 해결책 내 놓아

- 호혜원 약취 저감미생물공급, 특허기술 이전 등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기대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자체 개발 미생물제제를 도내 양돈농가와 호혜원 실증시험을 통해 약취 감소 효과를 얻어 도내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하여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내 놓았다고 3월 20일 밝혔다.
- 이 미생물제제는 2013년부터 축산연구소에서 신규 개발한 것으로, 1차 실증시험(나주, 해남 양돈농가) 결과가 우수하여, 2차로 나주 혁신도시 주변의 호혜원 양돈 농가 및 공동 퇴·액비장(16개소)을 대상으로 금년 2개월간(2015. 1~2월) 공급한 결과, 대표적인 약취 물질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 자체 조사 결과, 호혜원 양돈농가들은 축사 내 약취가 많이 감소하여 사육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말하였고, 혁신도시 일부 주민들도 약취 정도 및 발생 빈도가 줄었다고 말하였다.

- 이에 따라 도내 축산농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생물 생산업체인 순천시 소재 (주)유-바이오텍과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제 및 이를 이용한 악취저감 방법”의 특허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 대량생산 및 안정적인 판매 체계 구축으로 축산농가의 최대현안인 축사 악취문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특허기술 이전 업체인 (주)유-바이오텍 이창민 대표는 “축산농가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기술을 축산연구소에서 개발함으로써 악취 민원 증가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에 따라, 특허기술이 농가에 신속히 보급되도록 완제품을 조속히 생산해 전남 축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였다.
- 박상국 축산연구소장은 “이번 특허기술이 도내 축산농가에 공급되어 가축 분뇨 악취저감 등 가축 사육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하면서 앞으로도 축산 농가에 필요한 새로운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통해 사료값, FTA 등으로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6. 정책동향

◆ 농식품부, '15년 농촌재능나눔 민간단체 공모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일반단체 농촌재능나눔 지원사업' 공모 계획을 발표하고 4월 1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
- '일반단체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은 농촌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대학교·기업·직능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의 재능나눔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 동 사업은 일반적으로 농촌재능나눔 활동이 거리나 비용의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 재능나눔 프로그램이 우수한 민간단체를 선발하여 재료비, 교통비, 숙박비 등 재능나눔 활동에 소요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일반단체 지원사업 공모내용 >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금액		선정단체수
	총액	단체당 지원한도	
계	230,000		40
직능·사회봉사단체	100,000	10,000	10
대학교·대학생동아리	80,000	4,000	20
기관·기업체	50,000	5,000	10

- 민간단체 공모사업은 과거 의료봉사, 이미용, 장수사진 찍기 등 복지서비스 지원형이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인형극 등 문화

공연, 스마트폰·SNS 활용법 가르치기, 생태미술 강습 등 분야가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 '14년 한 해동안 기업, 대학교, 단체의 농촌재능나눔 활동 지원을 통해 총 68개 단체(12개 기업, 30개 대학교, 26개 직능단체) 1천2백여명이 재능나눔 활동에 참여했으며, 264개 마을, 14천여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재능나눔에 기여가 큰 단체나 일반국민을 선정하여 하반기에 포상할 계획이고, 홍보공모전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 “이런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과 민간단체·기업 등을 연계하는 함께하는 캠페인 활동이 지역내에서 서로 돕는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주민의 손으로 더 깨끗한 농촌 마을을 만든다

- 환경개선을 위한 마을과 지자체의 자발적 노력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함께 가꾸는 농촌 운동” 추진 -

□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농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등 농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 주민 주도의 마을 청소, 야생화 식재 등을 통해 마을 고유의 환경자원(금강수계, 반딧불이)을 유지·보전하고 이를 축제로 까지 발전시킨 충북 옥천의 안터 마을,

- ◆ 마을 회의를 통해 주민 의사를 모아 환경 개선 활동을 추진하여 매년 7~8천여 명이 방문하는 안터마을 반딧불이 축제 개최
 -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공동 구매하여 각 가정에 배부, 무단 배출을 방지하는 한편 남은 봉투는 버스 승강장 등에서 공동으로 활용
 - 농어촌공사, KT 등과 합동으로 대청호 쓰레기 줍기 활동 등 지속 추진

○ 낚시인들이 배출한 쓰레기로 더럽혀진 마을과 저수지를 주민이 먼저 나서서 청소하여 마침내 낚시인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 **충남 태안의 길우지 마을** 등이 좋은 사례이다.

- ◆ 주민 토론을 통해 먼저 깨끗한 환경을 만든다면 낚시인들도 쉽게 쓰레기를 배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에 도달
 - 마을 내 주요 조직별로 명확히 역할을 분담하여 환경 개선 활동 추진 : (청년회) 환경 정리 등 활동 전담, (부녀회) 쓰레기 줍기, 간식·식사 제공, (노인회) 정기적으로 저수지 주변 환경 정화 활동 추진

□ 주민들의 환경 개선 활동을 돕기 위해 지자체도 노력하고 있다.

○ 경북 성주군의 경우 '12년부터 「Clean 성주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여 전국 최초로 '들녘 환경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 들녘 환경심사제 : 농업 분야 보조 사업자 선정 시 들녘 환경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폐비닐·폐부직포를 방치하는 등의 농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전북 진안군에서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안 태우고, 안 묻고, 안 버리는 「3No 운동」 캠페인을 '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주민과 지역사회 주도의 환경 개선이 정착된 유럽에서는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통해 관광객 재방문과 관광 소득 확대를

이끌어내어 침체되었던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있다.

- 독일의 경우 “우리 마을은 더 아름다워져야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1961년부터 꽃·묘목 식재 등 농촌의 미적 요소를 개선하는 활동을 추진한 바 있으며,

◆ 독일 바이에른 주 뉘른베르크 마을

- 인구 감소로 침체되어 가는 마을이었으나, 1976년 버려진 마을 정류장을 깨끗하게 고치면서 마을 정비를 시작
- 집 앞 꽃·묘목 식재, 버스 정류장 위치 조정, 도로 정비, 빈집 정비 등을 통해 마을 경관과 환경을 개선하고 2006년 ‘우리 마을은 좀 더 아름다워져야 한다’ 콘테스트에서 은메달 획득

- 아일랜드의 경우 1958년부터 “너의 공간을 더욱 더 좋게 만들자”는 슬로건으로 수백 개의 마을이 참여하여 농촌 환경 개선 캠페인과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Tidy Towns」를 추진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유럽과 같이 주민과 지자체의 환경 개선 활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함께 가꾸는 농촌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함께 가꾸는 농촌 운동”은 논·밭, 축사 등 생산지나 마을 주변의 생활공간에 방치된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꽃·묘목 식재 등 경관을 조성하는 환경 개선 활동으로,
- 주민 중심으로 추진하고 지자체, 지역 농협, 농업인단체, 농업 관련기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활동을 지원한다.

- 여전히 많은 농촌 마을들이 생활·영농폐기물 방치, 축사 냄새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나,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주민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 오는 26일 경북 성주에서 개최되는 발대식을 기점으로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고, 본격적인 영농 활동이 시작하는 5월까지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 발대식에는 주민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 관련 기관장, 농협중앙회장, 농업인단체장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 성주군 내 9개 구역에서 마을 및 들녘, 하천 주변 정비를 동시에 진행하며, 각 구역에서는 생활·영농폐기물 수거,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교체 및 꽃·묘목 식재 등 농촌 환경·경관 개선 활동을 추진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귀농·귀촌, 농촌 관광 등 농촌에 대한 관심의 출발점인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 무엇보다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므로 민간이 중심이 되고, 지자체와 지역 농림 기관 등이 지원하는 함께 가꾸는 농촌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하며,
-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 및 지자체, 관련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친환경 · 고품질로 앞당긴다.**

- 농관원,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총력 추진을 다짐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3월 23일 14시에 경북 김천시 소재 김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국립종자원과 합동으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올해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 원년인 만큼, 핵심과제인 ‘농식품 수출 확대’,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농관원 역할과 ‘농식품 안전’, ‘원산지 관리’, ‘농업경영체 등록·지원’ 등 농관원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제고를 위해 전국 현장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농업인, 교수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농정을 총괄하고 있는 농관원의 올해 업무방향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의견과 정책방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열띤 토론도 이루어졌다.

□ 농관원은 지난해 ‘농업인 및 소비자와 함께 행복한 농장,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 아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누수 없이 지원했다고 평가하였다.

○ 먼저, 취약 품목과 시기, 생산환경, 신종 유해물질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산물우수관리(GAP)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해요소 중심의 안전관리 전환 및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납품 전 검사 확대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였다.

- 한편, 친환경농업의 급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부실인증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으나, 신속하게 친환경인증 내실화 기반을 마련하여 불안심리를 안정시켰고, 처음으로 이루어진 미국·EU와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도 우리나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원만히 해결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FTA 특혜관세의 효과가 실제 현장까지 전달되도록 '14.11월 관세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원산지증명에 대한 농가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 18만 인증농가가 FTA체결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하였고, 국가인증 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기업과의 상생협력으로 6차산업화도 촉진하였다.
- 특히, 농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이·통장 등과의 협업을 통해 153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를 무리 없이 구축·갱신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농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조직·인력도 보강하였다.
- 이·통장뿐만 아니라 소비자·생산자까지 포함된 지역·전국단위의 '농정협의회', '농소정협의회', '지역농정 홍보관' 등을 활용하여 쌀 관세화 등의 주요 농정현안을 현장의 정책고객에게 설명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피드백 함으로써 주요 농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박근혜농정 2년차의 추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하였다.
- 반면, 친환경인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인증의 뿌리를 철저히 뽑지 못한 점,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제도(GAP)의 확산이 더딘 점 등은 향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 김대근 원장은 올해는 ‘쌀 관세화’, ‘한중FTA 체결’ 등에 따라 전면적 개방체제로의 대전환기로서 농산물 수입증가 등에 따른 부정유통 단속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시장 확대로 농식품의 수출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인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우리농업이 친환경·고품질에 기반한 미래성장 산업으로 대도약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품질·안전관리와 수출 촉진, 소득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 먼저,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미래성장산업화’의 핵심과제 이행을 위해 ①중화권, 할랄시장 등 신흥시장을 겨냥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②농관원에서 지정·관리하는 ‘스타팜’이 농촌체험 등을 통해 6차산업화의 선도경영체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농관원의 고유업무인 고품질·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보다 높여나갈 계획이다. 먼저, ③안전성 취약품목·시기·유통경로 등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④교육·컨설팅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제도(GAP)를 확산시키고, ⑤민간인증기관 등급화, 상습위반자에 대한 인증제한 강화 등을 통해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보다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쌀 관세화,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⑥빅데이터에 기반한 효과적 부정유통 방지·단속을 추진하고, ⑦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관리 내실화를 도모하며, ⑧‘시험연구소’를 통한 R&D를 강화하여 농산물 안전관리 대책의 품질을 높이고 빈틈을 없애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맞춤형농정 지원 분야 과제로 ⑨농업경영체 DB 품질 향상을 통한 맞춤형농정을 지원하고, 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 원장은 “농관원의 업무가 생산자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내부 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련기관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이동필 장관은 “농관원이 현장농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박근혜농정이 현장으로 원활하게 전파되도록 모세혈관과도 같은 일선 사무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생산자·소비자 모두가 박근혜농정에 대해 공감하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가 끝나고 친환경과 GAP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김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7. 해외 농업정보

◆ 2015년 미국의 대두파종은 사상최대인 반면 옥수수는 감소

미국 농가들은 올봄 87.25백만 에이커의 대두를 파종할 계획으로 이는 사상최대치일 것이다. 그러나 옥수수의 경우는 88.34백만 에이커로 감소했다. 대두는 2014년 83.7백만 에이커에서 4.2% 증가한 반면 옥수수는 2014년 90.6백만 에이커에서 2.5% 감소했다. 특히 옥수수의 파종면적은 2010년 이후 최소수준이다. 시장 분석가는 “재배업자들은 현금을 보유하고 싶어하며 특히 농가들은 대두에 관심이 많다.”라고 전했다. “이는 특히 델타지역의 면화 재배면적까지 축소시켰다.”고 덧붙여 전했다. 41개 주의 1,297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잡지설문지에서 2015년 면화 재배면적은 9.4백만 에이커로 지난 해 대비 15% 감소하였다고 한다. 한편 설문에 따르면 봄밀파종은 13.4백만 에이커로 작년 13.025백만 에이커에서 올해 13.4백만 에이커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듀럼밀도 작년 1.4백만 에이커에서 올해 1.6백만 에이커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 중국, 미국산 밀 판매

중국은 금주 미국산 적색연질밀(SRW) 20,492톤의 8.8%를 판매했으며 국내산 밀 800,000톤 이상 중 34%가 국가비축분에서 판매되었다. 저장성 남부지역의 곡물창고는 다음주 주간 판매에서 곡물창고비축분 중 호주산 밀 25,758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호주산밀은 2010년과 2011년에 수확되었다. 중국은 국내산 밀품질이 낮아 높은 단백질이 함유된 밀을 구매할 계획이다. 금주 허난성에서 열리는 경매에서 최대 밀 재배업자는 제공물량 204,953톤 중 4,410톤을 판매했다. 밀은 평균 톤당 2,401위안에 판매되었다고 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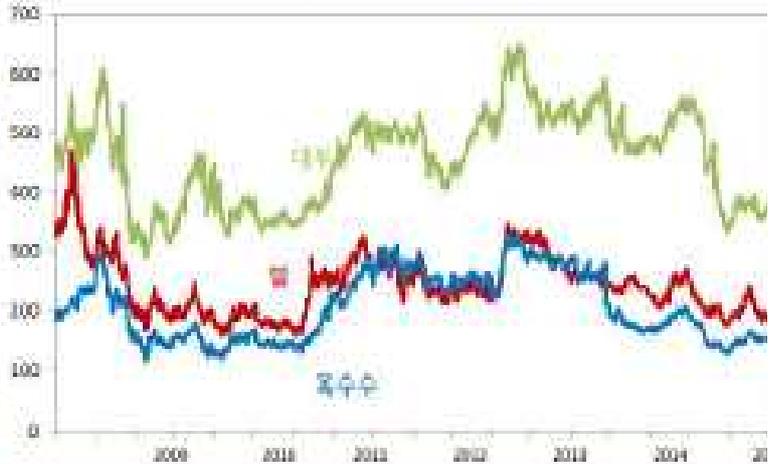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3. 24.(시카고 선물거래소)

곡물가격, 미 달러화 약세 및 환매수세로 상승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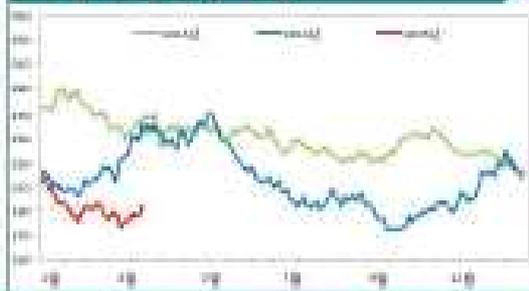
단위 : USD/ton

구분	기준일 (15.3.23)	전일대비	전월평균 (15.2)	2014 평균
밀	196.21	▲0.8%	190	216
옥수수	153.62	▲1.4%	151	164
대두	361.33	▲1.0%	365	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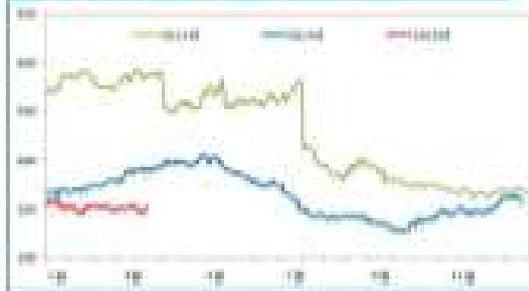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겨대연립물 2000),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보통옥수수 대두 2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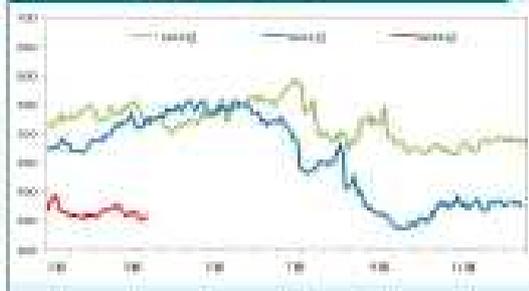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미 달러화 약세 및 환매수세 유입으로 강보합 마감했을. 또한 미국 대평야 남부지역과 러시아의 건조한 기후 및 한파로 인한 겨울철 작황차질 역시 가격에 상방압력을 가했을. 미국 대평야 지역의 건조한 날씨는 향후 10일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11-15일 정도 몇 차례의 소니지가 있을 것이나 기후개선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임.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도 미 달러화 약세 및 투자자들의 환매수세로 상승했을. 또한 기술적 거래 역시 가격에 상방압력을 가했을. 이러한 옥수수 강세 영향으로 곡 및 원유가격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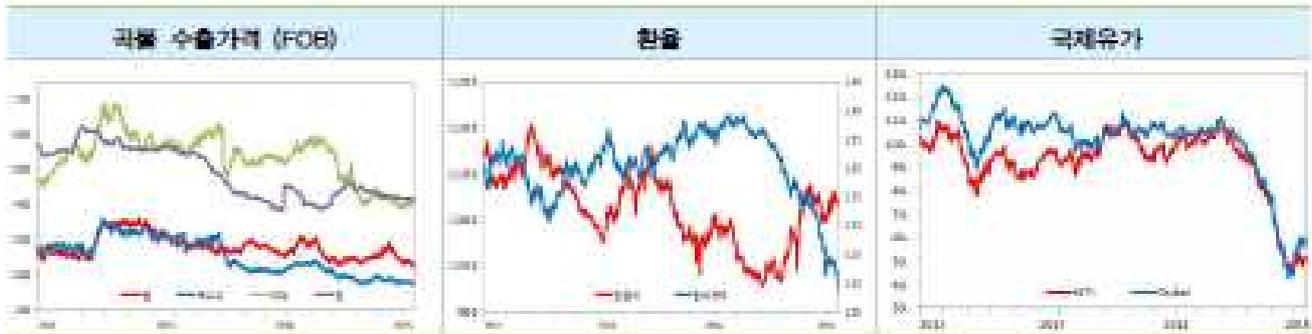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도 다른 곡물과 마찬가지로 미 달러화 약세 및 환매수세 유입으로 상승했을.

KREI 해외곡물시장

일일동향 Daily World Grain Report <http://grain.krei.or.kr>

해외 동향

- 미국산 옥수수 수출가격은 흉수로 인한 수출차질로 견조세를 보이고 있음.
- 국제유가는 유로화 대비 미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사우디 원유공급 증가 소식 및 과잉공급 지속 우려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되었음.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전월평균 ('15.2)	2014 평균	2013 평균
곡물 수출가격 (FOB)	밀	237	▲2.8%	236	261	284
	옥수수	178	▲3.5%	179	205	255
	대두	388	▲1.0%	401	501	556
	쌀	405	▼0.7%	417	425	488
환율	원/달러	1,118	▲1.1%	1,098	1,053	1,065
	달러/유로	1,096	▼0.5%	1.14	1.33	1.33
국제유가 (USD/barrel)	WTI	47.45	▲3.8%	50.65	92.97	97.94
	Dubai	52.87	▲1.8%	56.05	95.64	105.32

주: ① 밀(US G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de II), WTI(5월물), Dubai(현물)
 ② 기준일은 '15.3.20(수출가격), '15.3.24(환율), '15.3.23(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해외곡물시장 관련 소식

- 러시아 Sovecon에 따르면 2015/16년 겨울곡물의 11~12%가 동사했으며 평균치인 10%이하에 비하면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함.
- 우크라이나 통계청에 따르면 3월1일 기준 농업회사의 곡물재고는 19.3백만 톤(전년대비 22%증가)이며 그 중 밀은 6.2백만 톤, 보리는 1.6백만 톤, 옥수수는 10.7백만 톤이라고 함.
- 태국 원당기업은 3월 선착순 미국산 옥수수 20,000톤, 대두 15,000톤을 구매할 계획임.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8. 고소득 농업사례

■ 밭에서 나는 응답 '울금'...밭효로 성분 UP!

- 친환경 재배로 시장공략 '블로치울금농장' -
- 콩나물·북어도 울고갈 '흑울금' 국내 첫 개발 -
- 소금·가루·환·즙 등 상품 개발로 대중성 시동 -
- "울금하면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꼽히잖아요. 여기에 밭효를 거쳐 성분을 12배나 늘렸으니 효능을 더 설명할 것도 없죠. 재배도 자연농법으로 하다보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북어도, 콩나물도, 꿀물도 울고 갈 간 해독제로 '울금'이 떠오르고 있다.
- 카레에 노란색을 띠게 하는 주성분으로 유명한 커큐민이 풍부한 울금은 인삼의 사포닌 못잖게 뛰어난 효능을 자랑한다.
- 간해독은 물론 항암, 당뇨, 고혈압에 좋은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 곡성군 삼기면 경악리에서 '블로치울금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병철(37) 대표는 지난 20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 '흑울금 밭효액'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며 "현대인들의 1등 건강보조식품으로 이것만 한게 없다"고 자부했다.
- 자심감 넘치는 노 대표, 그도 그럴것이 전남도농업기술원의 벤처형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울금 청년사업가로 변신한 노 대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흑울금 밭효액' 개발, 특허까지 출원했다.
- 그가 개발한 흑울금 밭효액은 울금 특유의 쓴맛과 강한 냄새를 싫어하는 소비자를 위해 쓴맛을 줄이고 기능성 성분인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였다.

- "흑마늘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했어요. 맛도 기능도 향상돼 으뜸 건강식품이라고 자신합니다. 가루, 즙, 환, 소금 발효액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더 많은 관련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사실 노병철 대표는 울금에 뛰어들지 몇년 안되는 새내기 농부다.
-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준비를 하던 그는 지난 2009년 어머니의 교통사고로 처음 울금 농사에 손을 댔다. 병원에 지내는 어머니를 대신해 400평 남짓한 밭에 있던 울금을 수확한 것이 시작이었다.
- "판로가 어디 있었겠어요. 차마 버릴수는 없어서 어머니 사고 수습을 도와주셨다는 어르신들에게 그냥 드렸죠. 그런데 그게 입소문을 탔더라고요. 이듬해 봄, 종자를 달라는 연락이 이어졌고 귀농의 계기가 됐어요."
- 펜을 잡고 의자에 앉아 공부하던 그는 결국 지난 2012년 결혼과 함께 본격 귀농생활을 시작했다.
- 곡성읍내에 위치한 '곡성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소비자들이 노병철 대표가 생산한 울금 관련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 하지만 농사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사실 울금 재배는 썩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
- 뿌리작물인 울금은 3월 말 부터 파종해 10월 말 채취까지 자연상태에 놓아두면 잘 자란다.
- 하지만 노 대표는 타지역과 같은 재배방법으로는 울금시장을 공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자신만의 농사법을 개발했다.
- 그러던 중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곳

에서 배운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 토착미생물, 흑염소 퇴비를 활용한 유기질 자재 등을 활용해 자연농법 그대로를 고집한 덕에 지난해 기준 전체 9만평 농장 중 2만평 이상이 농림식품수산부의 무농약 인증을 받았다. 곡성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하다.
- 이를 바탕으로 흑울금 발효액과 같은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했고 온·오프라인 직거래 판매망도 구축했다.
- 일손부족은 수확, 선별, 출하 등 전반에 걸쳐 작목반을 통한 공동시스템으로 해결했다. 수확한 그대로의 품질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출하를 위해 100여t을 저장 할 수 있는 토굴 저장고도 만들었다. 덕분에 노 대표는 귀농 4년만에 곡성 울금 대표주자로 떠오르며 억대농에 이름을 올렸다.
- 전체 울금 재배면적, 규모, 생산량의 90% 이상이 노 대표의 소유다.
- "울금은 속살이 노랗다 못해 짙은 순금색을 띠고 있어서 '밭에서 나는 황금'으로 불려요. 효능이 좋아 '땅속 웅담'이라고도 하죠. 쓴 맛 때문에 대중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유의 향과 청량감에 한번 매료되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예요."
- 노병철 대표는 국내 첫 개발에 성공한 흑울금 발효액을 기반으로 울금 관련 제품의 다양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또 흑울금 전용 종자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그는 "울금 특유의 쓴 맛을 중화시키면서도 효능은 증대시켜 대중화에 앞장서고 싶다. 틈새시장을 공략해 특용작물의 판로 한계를 극복하고 싶다. '울금하면 곡성' 목표 달성을 위해 뛰겠다"고 자신했다.

- 젊은 농부 노병철 대표의 미래가 기대된다.
- 한편 곡성에서 울금을 재배하는 농가는 35농가 정도다. 재배 면적은 30ha로 연간 540여t을 수확한다. 국내 총 생산량이 1천500여t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울금 생산량의 30% 이상이 곡성에서 나오는 셈이다.

▲ 울금 어디에 좋나

- 간 물론 항암·성인병 예방·다이어트 효과까지
- 고되고 지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술.
- 술~술~ 잘도 들어가는 술 때문에 간은 소리없이 병들어가고 있다.
- 간 건강의 적식호가 커지면서 해독을 돕는 식재료가 각광받고 있다.
-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울금'
- 땅속의 황금, 건강의 보고라고 불리는 울금, 우리 몸 어디에 좋을까.
- 울금은 생강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의 하나다.
- 카레의 주원료로 잘 알려진 울금은 식용은 물론 약용, 염색용 등으로 쓰임도 다양하다.
- 울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편이지만 일본에서는 대표 건강식품으로 꼽힌다.
- 울금은 심황색소로 불리는 커큐민을 비롯 풍부한 미네랄 무기영양소, 후라보노이드, 칼슘, 칼륨 등 각종영양소가 풍부하다.
- 울금은 간에 특효다. 섭취하면 담즙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간이 해독되고 제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 혈중 콜레스테롤도 감소시키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 또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울금은 또 뛰어난 항암효과가 있다.
- 항염작용이 뛰어나 위암, 전립선암에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암예방학회는 최근 울금을 항암식품 중의 하나로 발표하기도 했다.
- 대장, 피부, 간, 전립선, 방광 등에 효과가 크다.
-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인 비만과 다이어트에도 울금이 효과적이다.
- 월경불순, 생리통, 변비, 노화방지 등에도 도움을 주는 여성에게 좋은 효능을 많이 가진 식품이다.
- 울금은 밥이나 무침, 탕 등에 조금씩 넣어 먹으면 부담없이 먹을 수 있다.
- 혹시나 울금 특유의 쓴맛과 향이 부담스럽다면 음식에 조금씩 첨가하거나 우유나 요구르트 등 유제품과 함께 먹어도 좋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해남서 빨간배추 본격 재배

- 안토시아닌 함유 99만㎡ 규모...겨울배추 대체작목 -
- 배추 주산단지인 해남에서 향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가득 함유된 빨간 배추가 본격 재배된다.
- 겨울배추 과잉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빨간배추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 29일 해남군에 따르면 안종옥 성진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지난해 시험재배한 빨간 배추가 인기를 끌자 올해 면적을 대폭 확대한

다. 3,300m²에서 총 99만m²으로 늘렸다.

- 33만m²은 성진영농조합법인이, 66만m²은 사단법인 땅끝해남 귀농 귀촌협회가 각각 재배한다.
- 안 대표는 “올해 생산할 빨간배추는 수출과 함께 국내 홈쇼핑 등지에 가공 김치 형태로 판매하겠다”면서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빨간 배추는 항산화 효과(노화 방지), 시력 개선, 혈관 질환 예방, 소염 및 살균 작용, 인슐린 생성량 향상, 기억력 개선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안 대표는 설명했다.
-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함유된 빨간배추는 시각·기능적으로 다양해진 소비자의 먹을거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잎과 줄기가 일반 배추나 양배추보다 부드러워 먹는 느낌이 좋아 고소득 작목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전남매일

9. 사업신청 안내

◆ '14년산 콩 보급종 추가신청 접수

- 신청기간 : 3. 23. ~ 4. 10.
- 신청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대상품종 : 대원, 태광, 풍산나물 등 7개 품종 700톤
 - 장류 및 두부용 : 6개 품종(대원, 태광, 우람, 대풍, 천상, 연풍), 610톤
 - 콩나물용 : 1개 품종(풍산나물), 90톤
- 공급가격 : 17,400원/5kg
- 종자공급 : 4. 1. ~ 5. 10.까지(지역농협을 통해 신청농가에 공급)

◆ '14년산 벼 보급종 개별신청 접수

- 신청방법 : 국립종자원홈페이지(www.seed.go.kr) 및 전화신청
- 대상품종 : 황금누리, 추청, 삼덕, 남평, 일미 등 13품종 1,200여 톤
- 종자공급 : 종자대금 입금 후 택배를 통해 농가에 공급 또는, 직접 방문 수령

<벼 개별신청 공급기관 안내>

공급기관	품종	소재지	전화번호
경기종자관리소	대안 추청	경기도 평택시	031-229-5936
충북지원	대안 추청	충북 제천시	043-643-4065
강원지원	오대, 운광, 대안	강원 홍천군	033-433-2515
충남지원	황금누리	충남 아산시	041-540-4112
전북지원	황금누리	전북 정읍시	063-530-3670
전남지원	소다미, 호평, 황금누리	전남 함평군	061-323-0702
경북지원	일품, 삼덕	경북 안동시	054-858-5703
경남지원	남평, 일미, 진수미, 추청, 칠보	경남 밀양시	055-355-2578

◆ '1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가 신청

- 신청기간 : 3. 26. ~ 4. 15.
- 신청장소 : 시·군(축산부서)
- 지원대상 : 2014.12.31일 이전 축산업등록·허가된 가축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6억원(보조금 6, 용자금 200)
- 지원기준
 - 보조지원(준업농~전업농 규모) : 보조 30%, 용자 50%, 자담 20%
 - 이차보전(기업농규모) : 용자 80%, 자담 20%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 등 신축 및 개보수

◆ 닭·오리 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신청

- 기 간 : '15. 3. ~ 12.(10개월간)
- 신청장소 : 시·군(축산부서)
- 지원대상 : 260개소(닭·오리 사육농가)
- 사 업 비 : 2,600백만원(국비 780, 도비 234, 시·군비 546, 자부담 1,040)
 - 지원기준 : 개소당 10백만원(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40)
 - 지원내역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비용

주간

전남농업정보 27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3

Fax. 061-286-4782

